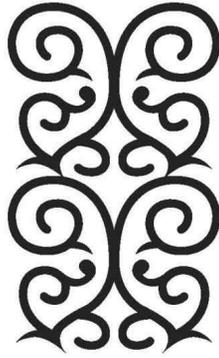


세션 1



아시아 줄다리기 공유성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





【주제발표 1】



아시아 줄다리기의 공유성과 무형유산 공동체

함 한 희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1. 시작하며

줄다리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서 지금도 연행되고 있다. 양편이 줄을 사용하여 당기면서 힘을 겨루는 놀이인 줄다리기는 지역마다 흥미로운 양상을 가지고도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주로 벼농사 재배지역 주민들의 풍년기원이나 감사제 형식으로 전통적인 줄다리가 연행된다고 한다. 최근까지 줄다리기 의례가 확인된 아시아 지역으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일랜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가 있다.¹ 생태·환경적 측면과 줄다리기 분포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사쿠라이 교수는, 특히 정착농경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²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줄다리기 분포를 알아보는 것은 유용하며, 또 각 지역에서 연행되는 줄다리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를 더한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¹ 아시아의 줄다리기 분포도를 작성한 사쿠라이 타츠히코에 따르면,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영국 등에도 줄다리가 분포하지만,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세계의 줄다리기 분포도’를 제시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사쿠라이, “아시아의 줄다리기 그 분포의 특징”, 『줄다리기민속의 문화적 역할과 국제협력방안 발표집』, 2010, 18-25 쪽). 일본은 줄다리가 민속놀이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특히 큐슈, 오키나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정형호, 2007).

² 화전농경민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사쿠라이, 2010, 19 쪽). 그는 줄다리기의 분포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시아의 경우, 벼농사를 하는 어촌에 줄다리가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농사를 준비하면서, 농사의 주요한 절기에 맞추어 풍농기원제로 행해지기도 하고, 풍년제, 추수감사, 때로는 기우제의 성격을 가진 의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시아의 줄다리기는 유사점이 많지만,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두드러져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하면서도 전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진시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줄다리기 연구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중일의 비교연구를 비롯해서 아시아지역의 분포도, 줄다리기와 생태문화의 관련성, 줄다리기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³ 최근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국의 줄다리기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본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된 줄다리기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및 한국의 사례에 국한시켜 보기도 한다. 이 발표에 사용된 자료가 발표자가 직접 현지 조사를 해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2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도 밝혀두고자 한다.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 발표를 준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시론에 해당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추후 논의를 완성시키고자 한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시작된 연구이지만, 본 발표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룬 부분으로 기존 연구의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연행 공동체 주민들의 의식, 이른바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내지는 그 힘의 원천에 좀 더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것이 이 발표문의 목적이다.

2. 기존연구검토

아시아지역의 줄다리를 광범위하게 비교 연구한 논문이 그리 많지는 않다. 따라서 논제도 다양한 편이 못된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주목해 온 부분은 전파론에 의거한 기원설이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다. 줄다리기의 기원을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로 보면서 도작문화 또는 불교의식의 전래와 유관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기원설을 통상 받아들여 왔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기원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김광언, 2004; 위엔리, 1998; 표인주, 2008). 특히 도작문화와의 관련성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의 밀교로부터 줄다리기의 기원을 찾아보는 연구도 있다(송화섭, 2009). 전파설에 대한 비판으로 자생설로 보는 학자

³ 당진문화원, 2009;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2010; 당진시, 2013의 발표집을 참고할 수 있다.

들도 있다(임장혁, 2009).

두 번째로는 아시아 줄다리기의 특징을 비교분석해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있다. 사쿠라이 교수는 아시아의 화전민과 수도작 민족, 즉 농경민에게 나타나는 줄다리기의 공통점을 7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풍요기원의 농경의례, ② 신년 풍요의 길흉을 점치는 행위, ③ 성적 교제의 상징적 행위, ④ 여성의 승리는 풍요를 예측, ⑤ 천부지모 성혼관련, ⑥ 쌀 줄의 결합을 통한 하늘의 정액(비)이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풍속, ⑦ 줄을 용사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사쿠라이, 2010).

줄다리기의 줄의 모양, 기능, 상징을 모두 비교검토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용, 뱀, 지네, 생식기 등으로 상징되는 줄은 저마다의 신화와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기에 이를 유형화시켜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줄을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줄다리가 끝나고 나서 줄의 처리 방법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줄을 강으로 떠내려 보내기도 하는데, 줄을 나무나 돌에 묶기도 한다. 줄이 용을 상징하는 경우에는 기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베트남 응에 안(Nghe An) 지방의 쾨궁(Con Cuong)의 타이사람들은 기우제로 ‘용꼬리 당기기’라는 줄다리기도 있다. 비를 불러와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한국의 경우, 줄다리가 끝나고 당산에 줄을 감는 마을도 있는데, 이를 성행위의 상징으로 보며, 궁극적으로는 풍요다산의 신앙으로 본다.

또 줄다리가 열리는 시기와 생업 환경을 비교 검토해서 도작농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적하는데, 그 준거의 하나로 벧짚을 사용하여 줄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행 공동체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짚, 등나무, 대나무, 어린 나뭇가지 및 동물가죽 등 사용되는 줄의 재료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줄다리가 열리는 시기도 각양각생이지만, 대체로 신년을 전후한 시기, 시농의 시기, 그리고 수확의 시기에 열리는 일이 많다.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을 공동체 의례인 줄다리는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사회적인 단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다.

3. 4개국 줄다리기 공동체의 특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신청한 4 개국의 줄다리기 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⁴ 줄다리기 의식은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벼농사 재배지역 전역에 걸쳐 연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우와 풍년을 기원하거나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고 또 감사의 의미로 줄다리를 한다. 이와 관련된 의식은 각 지역마다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사한 의미 및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라·지역 특성	시기	참여자	공동체적 의미
떼안 플롯 (Teanh Prot)	[캄보디아] 호수가 농촌	설, 출롱첻	연장자 주관, 남녀참여	수호신 제사, 놀이를 겸한 복합행사로 풍년 기원, 사회적 단결, 감사제의 성격을 가짐.
푸눅 (Punnuk)	[필리핀] 강가의 계단식 농경지대	추수	의례 담당자, 남성만 참여	
케오 코(Keo co) 케오 송(Keo Song) 데이 가이(day gay)	[베트남] 7 개 농촌마을	설	연장자 주관, 심판 존재, 남성만 참여	
줄다리기	[한국] 농촌마을	대보름 전후, 추석, 단오	보존회 주관, 남녀 참여	

[표] 4 개국의 줄다리기 비교

1) 캄보디아의 떼안 프롯(Teanh Prot)

씨엠립 주의 크레스, 캄보르올, 크놀트롱 공동체는 톤레삽 호수(Great Lake of Tonle Sap)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앙코르 유적지에 근접해 있다. 줄다리기는 설 명절, 벼농사와 관련이 있는 출롱첻(Chlong Chet) 의례 때 연행한다.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축제를 벌인다. 마을의 연장자들이 의례를 준비하며, 젊은 남녀들이 줄다리기에 참여하여 경기를 벌인다. 이 농촌 마을의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고 흥겨운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단결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의 줄다리기는 앙코르와트 사원(12 세기에 건립)에 새겨진 유해교반(乳海攪拌) 신화로 유명하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암리타라는 보약을 찾기 위해서 신과 악마가 힘을 합해 줄을 당긴다는 신화이야기가 사원에 새겨져 있다(시온 소페아리트, 2013).

⁴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당진시, 2013), 2013 년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2013)를 참고하였다.

2) 필리핀의 푸눅

홍두안 지역의 하파오, 농굴롱안 및 바앙에서만 유일하게 줄다리기 푸눅(punnuk)을 연행한다. 아파오강에서 줄다리를 하는데, 하파오 강과 지류가 만나는 지점인 눈히푸카나(nunhipukana)로 모인다. 뚜왈리 이푸가오 종족의 줄다리기는 신들에게 수확에 대해 감사와 내년 수확기까지의 지속적인 축복을 바라는 공동체적 기원을 담은 의례이다. 계단식 벼 경작지로도 유명한 이 지역에서 추수를 끝내고, 한 해의 농사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감사축제에서 줄다리가 행해진다. 여기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며, 마을의 연장자들과 대표들은 의례를 주관하고, 남성들은 줄다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줄다리에 참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통의상을 입고 동아(dong-ah)잎을 흔들며 강가까지 이어지는 행진에 참여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강에 몸을 담그는 의식이 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모든 금기를 종식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마을 연장자와 의례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두무팍(dumupag)’이 푸눅 의례 전반을 주관한다(노마 레스피시오, 2013).

3) 베트남의 케오 코(Keo co), 케오 송(Keo Song), 데이 가이(Day gay)

베트남에서 전통 줄다리기 의식은 라오카이(Lao Cai), 박닌(Bac Ninh), 빈푹(Vinh Phuc), 하노이(Ha Noi), 타니호아(Thanh Hoa), 응에안 등 북부지방 성들과 도시들, 그 밖에도 호치민시를 포함한 남부 기타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행된다. 베트남에서는 줄다리기의 연행의 특성, 의미, 규칙 등이 지역별로 다양하다. 보통 봄 축제에서 풍작을 기원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례로 연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적 사건, 신화,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연행하기도 한다. 줄다리에 있어서 통상 마을의 연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의 참가자는 남성들로 체력에 따라 선발된다. 경기를 할 때는 심판이 주관하며, 마을의 연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줄다리와 관련된 의례를 집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구술로 줄다리의 기술과 의식 등을 전승해 왔다. 줄다리는 새해맞이 놀이로, 한 해의 풍년을 빌면서 닭싸움, 씨름, 오리 집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진다(옹옌 티 투하, 2013).

4) 한국의 줄다리기, 줄당기기, 줄땡기기, 줄끗기

한국에서 전통 줄다리기는 남부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례 줄다리기

행사를 위한 줄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거의 한 달 동안 일치단결해야 한다. 실제 줄다리기에 앞서 지역 신들을 기리는 정교한 의식을 치른다. 한국에서 줄다리기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 사람들의 재정능력에 따라 십시일반 하여 충당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런 방식의 참여는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줄다리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줄다리기는 동계 및 여러 수호신의 제사를 지내면서 주민들이 흥겹게 노는 풍속이다. 정월 대보름 무렵부터 놀이는 시작되지만, 큰 줄을 만드는 마을에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 줄을 준비할 때나, 당길 때 주민들은 놀이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커진다. 농악대가 함께 등장하기 마련이다.

위에서 예로 든 몇몇 공동체의 줄다리기 의례는 아시아 줄다리기로 보기에 그 표본이 너무 적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일반화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례분석 정도로 만족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논의된 제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줄다리기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놀이임은 분명하다. 남성들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응원객으로 적극 참여한다. 이때 의례를 주관하는 마을의 연장자, 종족의 대표자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의식, 기술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할 뿐 아니라 신화, 전설, 전래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중심인물들이다. 이들이 전승하는 것이 단지 의례방식, 줄을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마을의 이야기들이 줄다리를 통해서 전승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줄다리기의 신화적 내용들이 마을의 공동체성을 진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발표에서는 줄다리기 의식이 공동체의 신화, 전설, 역사적 사건, 가치관을 전승하는 주요기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 줄다리기의 비교 연구의 관점

줄다리기의 비교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화 통한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적 접근이다. 줄다리기와 관련된 의례와 신화, 전설의 상징과 의미를 분석해서 줄다리기 연행자·집단·공동체의 정신 구조에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다리기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얼마나 다양한지를 연구자들은 문화의 구성요소를 분석해서 차이점을 강조하게 된다. 줄의 재료와 형태, 줄 만들기 과정, 진행되는 시공간, 편 가르기, 줄의 처리방식, 제례방식 및 상징성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줄다리기가 많이 행해지는 아시아 각 지역들을 놓고 보더라도 유사성 보다는 차이성이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논자들은 줄다리를 아시아의 공동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이 의례가 줄을 가지고 겨루는 놀이라는 점만 가지고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다리기가 문화의 공유성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닌 의식의 차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조주의적 분석 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문화비교에 있어서 동형이질론(isomorphism)의 시각을 가지고 구조적인 동질성을 밝히는 일은 유용하면서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 분포된 줄다리기의 비교연구에서 전파론이나 문화접합론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연구의 틀이라고 생각된다.⁵ 전파론이나 문화접합론에서는 문화를 비교할 때, 현상 또는 표층구조의 유사점 내지는 차이점에 주목한다. 반면에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심층구조 내지는 정신구조를 통해서 문화의 동질성과 변형에 주목한다.

언어의 구조분석을 시도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는 두 개의 분리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기호 속의 발음을 시니피양(signifiant, 記標), 그 발음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적 내용을 시니피에(signifie, 記義)로 구분하였다. 언어학의 구조주의 이론을 신화학에 접목시킨 사람은 레비-스트로스이다. 신화의 청각적 이미지를 시니피양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개념을 시니피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언어·청각의 분석대상을 확대하여서 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의 저서 신화(Mythology, 1957)에서

⁵ 비교문화연구는 대체로 전파론과 문화접합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특정한 문화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전파 되었는가 즉 문화의 기원/원류를 찾아가는 것이고 후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 이루어졌는가에 논의를 집중하는 이론적 틀이다. 이 두 입장은 여러 차원에서 상호대조적인데 특히 논의 또는 분석의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파론은 글로벌한 관점이 유리하고, 문화접합론은 국지적 관점이 유리하다. 이처럼 분석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것이어야 하겠지만,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상호대립적이다. 문화접합론은 지역의 역동적인 적응과정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는 입장과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는 학문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대립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자체를 시니피앙으로, 그 뒤에 숨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와 내용을 시니피에라고도 주장하였다.

의례적 행위인 줄다리기의 경우도 시니피앙 즉 기표로 드러난 이미지와 그 속에 내재하는 시니피에인 기의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줄다리기 의식의 경우, 기표는 줄을 당기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힘을 대결하고 즐기며 노는 행위가 된다. 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의 즉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끌어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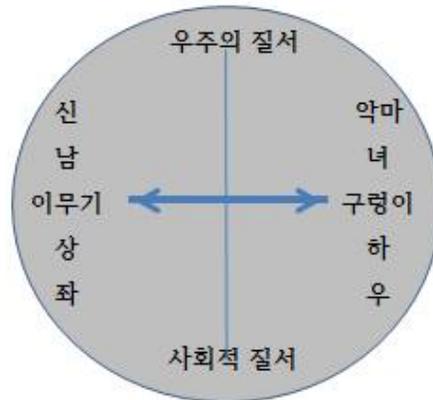
나는 여기서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한 줄다리기의 시니피앙의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줄다리기의 시니피에를 통해서 그 행위자들의 정신적 심층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 심층구조의 코딩을 발견해내는 일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줄다리기는 신화와 행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두 요소를 구조주의적 분석틀을 사용하게 되면 신화 하나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의미구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의 행위가 더하여지기 때문에 신화가 실제로 인간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화구조와 정신구조의 상관관계를 의미 분석의 차원으로 유도하여 심도 있는 해석에 이르게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줄다리기의 유형(有形)적 측면(줄, 재료, 참여자, 제물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단결, 풍요의 기원, 다산의 상징에 이른다고 논리적 비약을 하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줄다리기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대체로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모아지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서 줄, 재료, 편, 시간, 도구, 기술 등 자체에 천착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의식을 작용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분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도 줄다리기 관련 신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수집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집된 신화가 극히 적어서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가 크다. 후추 보충하여 분석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발표자가 인용 가능한 신화를 가지고 구조주의적 분석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신화는 그 구성하는 재료가 역사적 또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상황들로 구성되며, 이는 이론상 무한한 역사적 사건이 시리즈로 이어진 것을 말한다. 굳이 레비-스트로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신화의 구성 재료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를 쉽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각 사회·집단은 자신들에게 알맞은 ‘변별력 있는’ 재료 즉 ‘변별력이 있는 적당한 사건’을 선택하여 신화를 구성 한다(레비-스트로스, 2005, 116

쪽). 마찬가지로 놀이행위에서도 역시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료와 기술을 자신들·집단·공동체에게 맞는 합당한 것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공동체마다의 변별적 놀이가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줄다리기 놀이와 신화에서는 대결과 결합이 하나의 주제로 등장하고, 그 주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환을 필연적으로 유도한다. 마치 음악에서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생각해 낼 수 있듯이,⁶ 하나의 주제에 의한 변환은 끝없이 펼쳐질 수 있다. 행위자와 행위 집단의 합심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신화만한 좋은 재료가 없다. 실제로 지역마다 자유롭게 신화, 설화, 역사가 줄다리기에 들어있다. 신과 악마가 합심하여 보물을 찾으려 나선다는 캄보디아의 유해교반도 있고, 지네와 구렁이가 결투를 벌이다가 둘 다 죽는 기지시의 신화도 있다.



[그림] 줄다리기의 구조도

남/여, 신/악마, 이무기/구렁이, 아랫마을/윗마을, 강가 마을/강 건너 마을, 용기장이 / 타일 제조공 등의 대결의 기본 구조 아래서 변형의 자유로움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이며, 창의성과 유관하다. 이 대결은 다시 남녀, 암수, 신과 악마의 조화로 이어진다. 이 양극화는 대립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은 신화적 놀이적 대립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명제를 의식한다. 다시 말해서 신화와 신화적 행위를 통해서 줄다리기 공동체는 정체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공동체적 삶을 의식화 또는 내재화하기도 한다.

⁶ 레비-스트로스는 그의 저서 신화학에서 신화와 음악의 비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레비-스트로스, 2005).

5. 맺음말

줄다리기의 공유성은 문화요소의 기표를 통해서 찾아내기는 힘들다. 줄, 재료, 편 가르기, 시공간, 제의, 제물 등은 기표에 해당한다. 발표자는 줄다리가 진정 무형문화유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의를 통해서 행위자들의 정신구조를 만나볼 것을 제안해 보았다. 지금까지 ‘왜’ 줄다리가 공동체의 단결과 합심을 이루는 지를 설명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위자들이 줄다리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는 지에 주목해 보고자 했다.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한 무의식적 구조 역시도 줄다리기를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인간이 신화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인간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역설했다(레비-스트로스, 2005, 110 쪽).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그것을 구성하는 상징, 언어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심층구조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신화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언어적 표현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한 행위도 심층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줄다리가 행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 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줄다리기의 일련의 행위와 이야기가 공동체 구성원(참여자)들의 의식을 만든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다. 줄다리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고 본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노동,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의식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줄다리가 단합과 풍요기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엇이 의미 있는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서사적 행위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 나경수, “제의와 예술과 연희 : 전남지역의 당산제 일환으로서 줄다리기의 성격”, 『공연문화연구』 5, 한국공연문화학회, 2002, 69-104 쪽.
- 노마 레스피시오,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 분포와 전승 현황”,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당진시, 2013, 61-68 쪽.
- 당진문화원,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 심포지엄 자료집』, 2009.
- 레비-스트로스 (임봉길 역), “날것과 익힌 것”, 『신화학』 1, 한길사, 2005.
- 사쿠라이 타츠히코, “아시아의 줄다리기 그 분포의 특징”, 『기지사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기지사줄다리기보존회, 2010, 18-25 쪽.
- 박성용, “2003 년 협약체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2013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 당진시, 2013, 5-14 쪽.
- 박상미, “국경을 넘는 고유 무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당진시, 2013, 15-24 쪽.
- 서해숙, “한국 줄다리기의 도작문화적 성격”, 『농업사연구』 9, 2010, 1-17 쪽.
- 송화섭,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비교민속학』 38, 2009, 127-163 쪽.
- 시온 소페아리트,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분포와 전승 현황”,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당진시, 2013. 55-60 쪽.
- 오석민 외, 『기지사줄다리기』,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6.
- 위엔리(김인희 역), “중국의 축제 : 줄다리기, 한반도 풍년제의 기원”, 『국제아세아민속학』 2, 1998, 506-514 쪽.
- 응옌 티 투하,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축제,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2013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 당진시, 2013, 43-54 쪽.
- 이인화, “중요무형문화재 75 호 기지사 줄다리기의 유래 재검토”, 『실천민속학연구』 13, 2009, 35-69 쪽.
- 정연학, “동아시아 공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 당진시, 2013. 25-39 쪽.
- 정형호, “九州 해안도서와 동아시아의 민속문화 한·일 줄다리기를 통한 구주 민속의 접근”, 『동아시아고대학』 15, 2007, 141-170 쪽.
- 표인주, “영산강 유역 줄다리기문화의 구조적 분석과 특질”, 『한국민속학』 48, 2008, 299-332 쪽.
- 한양명,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49, 2009, 85-119 쪽.
- _____, “한국의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그 의미”,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당진시, 2013, 75-91 쪽.